

4) 민요

민요는 우리 인간들이 살아온 삶의 모습과 과정이 노래의 형태로 표출되어 정착된 것을 말한다. 민요에는 민중이나 생활공동체의 아름다운 정서들이 담겨져 있기 마련이고, 자연발생적인 성격을 가진다. 따라서 어느 나라나 그 음악문화를 자세히 따져보면 그 밑바탕에는 민요라는 마르지 않는 샘물이 있다. 어떤 노래가 민요가 되는 조건은 보편성에 달려 있다. 그 노래가 한 지역에 해당되는 보편성을 가지면 우리는 그것을 토속민요라고 하고, 한 민족공동체에 널리 퍼지면 통속민요라고 한다. 그래서 굿음악이나 전문가들의 노래, 영화 주제곡과 같은 규범적이고 인위적인 노래라도 그것이 그 지역이나 공동체 전체의 공감대와 보편성을 얻어서 민요로 인정받기도 한다.

전남의 예를 들면 전문가들의 노래인 육자배기는 촌로들이면 대부분이 부르는 민요가 되었고, 진도와 해남지역에서 주로 부르던 진도아리랑과 강강술래와 같은 토속민요가 이제는 온민족이 즐겨 부르는 통속민요가 되어 있다. 반대로 주로 순천지역에서 줄다리거나 달집태우기를 할 때 부르는 '달이덜롱'과 같은 노래는 토속민요로서의 성격이 강하다. 전라도 민요의 가창방식은 대부분이 메기고 받는 형태이고, 시집살이요처럼 혼자서 부르는 독창형태 등이 있다.

민요의 분류는 그 성격에 따라 크게 노동요와 유희요로 나눈다. 노동요는 농요(논노래·밭노래), 어요(벚노래), 산타령, 상여소리(만가), 베틀노래(물레타령) 등으로 세분되고 유희요는 오락요와 연정요, 타령 등으로 세분된다.

(1) 달이덜롱

유희요에는 강강술래와 같은 단순한 무용유희요가 아니라 승부를 가리는 놀이에서 부르는 경기유희요가 있다. 줄다리기노래, 살랭이노래, 율노래 등이 이에 속한다. 전남의 경기유희요로 대표적인 것은 진도의 살랭이노래와 주로 순천·고흥 지역에서 부르는 줄다리기노래이다. 그 중, 순천지역에서 주로 불리는 줄다리기노래를 '달이덜롱'이라 한다. 민요의 명명에서 흔히 보는 예와 같이, 노래의 후렴에 '얼싸 달이덜롱'이라는 사실이 고정적으로 덧붙여 있기 때문에 생긴 명칭이다.

정월 대보름에는 세시풍속으로 갖가지 시년행사(始年行事)를 갖는다. 그 중 대행사가 농경제의(農耕祭儀)이다. 여기서는 달맞이와 줄다리를 으뜸으로 여긴다. 달맞이를 위해 달집을 짓고 이를 불태우며 햇불놀이를 하고 편을 짜서 줄다리를 한다. 이때 부르는 노래가 달이덜롱으로 남해안 일대에서 부르는 강강술래 이상으로 즐긴다. 정월 대보름에는 결국 줄다리기의 행사의 일환으로 갖가지 놀이를 하는데, 앞의 달집태우기와 햇불놀이 등을 행하면서 달이덜롱을 부른다. 따라서 달이덜롱에는 다음의 여러 가지가 있다.

- ① 달집을 둘러싸고 부르는 달이덜롱
- ② 달집에 불을 지르면서 부르는 달이덜롱
- ③ 햇불놀이 때 부르는 달이덜롱
- ④ 햇불놀이의 구경꾼을 조롱하는 달이덜롱
- ⑤ 줄을 메고 시위하며 부르는 달이덜롱
- ⑥ 양편의 줄을 맞붙이면서 부르는 달이덜롱

- ⑦ 줄을 잡아당기며 부르는 달이덜롱
- ⑧ 줄다리기 승부가 난 뒤 부르는 달이덜롱

망월을 기다리며 ①의 달이덜롱을 부른다. 달이 나타나면 환호성과 함께 ②의 달이덜롱을 부른다. ③의 달이덜롱은 논과 밭두렁에 불을 지르면서 함께 부르고, ⑦의 달이덜롱은 주로 힘을 돋우는 소리로 '우이여차 허허'의 반복으로 되어 있다. ⑧의 달이덜롱은 승자가 줄을 놓고 꽃가마를 메고 흥겹게 놀이하면서 부른다. 이는 풍요다산을 바라는 농민들의 기원을 마음껏 노래할 수 있는 농가의 뜻깊은 시년제의의 하나이며, 가락은 육자배기조에 자진모리나 중중모리 한 장단씩 엮어지는 간결한 노래이다.

달이덜롱

얼싸 달이덜롱	얼싸 달이덜롱
어따 야들야 줄걸어 메라	얼싸 달이덜롱
우리 군산문 녹두장군	얼싸 달이덜롱
짹 짹 맞여라 호든옛 사주께	얼싸 달이덜롱
술밭에는 팽이도 총총	얼싸 달이덜롱
대밭에는 마디도 총총	얼싸 달이덜롱
하늘에는 별도 총총	얼싸 달이덜롱
꽃밭에는 꽃도 총총	얼싸 달이덜롱
꾸정물통에 호박씨 몇네	얼싸 달이덜롱
짚시락 밑에는 새새끼 놀고	얼싸 달이덜롱
동쪽군사는 병원에 갔네	얼싸 달이덜롱
서쪽군사는 약을 물고	얼싸 달이덜롱
이겨주소 이겨주소	얼싸 달이덜롱
서편쪽을 이겨주소	얼싸 달이덜롱
동편에는 말도 많다	얼싸 달이덜롱
가세 가세 어서 가세	얼싸 달이덜롱
어서 가서 줄을 메고	얼싸 달이덜롱
심껏 대고 당겨보세	얼싸 달이덜롱
자! 빨리 줄을 대세	얼싸 달이덜롱
서발만 더 내려오소	얼싸 달이덜롱
동쪽에는 다 올라왔네	얼싸 달이덜롱
대소 대소 줄을 대소	얼싸 달이덜롱
수줄을 문야 대어보소	얼싸 달이덜롱
암줄을 문야 대어보소	얼싸 달이덜롱
줄을 대고 비너를 찌리세	얼싸 달이덜롱
안 찌리는 육 나가네	얼싸 달이덜롱
자! 찢르세 당차게 비너를 찢르소 자! 자! 자! 당겨라	
자아 자아	
우이 여차 우이 여차 우이 여차~	
이겼네 이겼네	얼싸 달이덜롱

서발 우리가 당겼네	얼싸 덜이덜롱
서쪽을 이겼구나	얼싸 덜이덜롱
동쪽 농사는 어떠할까	얼싸 덜이덜롱
달아 달아 밝은 달아	얼싸 덜이덜롱
이태백이 놀던 달아	얼싸 덜이덜롱
이태백이 죽어지면	얼싸 덜이덜롱
뉘랑 노자 밝았느냐	얼싸 덜이덜롱

(2) 아리랑

아리랑은 경기지역을 중심으로 하여 전국적으로 널리 퍼진 아리랑과 진도에서 불리기 시작하여 전남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즐겨 부르는 통속민요 진도아리랑이 있다. 아리랑은 세마치 장단에 경기민요조로, 진도아리랑은 세마치나 중모리 장단에 육자배기조(남도 계면조)로 흥겹게 부르는 노래이다.

아리랑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빈부귀천을 한탄마소 손발을 걷어 일해보자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청천하늘에 별도 많고, 우리 살림에 걱정도 많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진도아리랑

아리 아리랑 스리 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응응응 아라리가 났네
서산에 지는해는 지고 싶어 지느냐
날두고 가신임은 가고 싶어 가느냐
아리 아리랑 스리 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응응응 아라리가 났네
십오야 밝은 달은 내사랑 같고
그믐의 어둔밤은 내간장 녹이네
아리 아리랑 스리 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응응응 아라리가 났네
산천초목은 달이 달달 변해도
우리 둘이 먹은 마음 변치를 말자

(3) 타령

전남의 서남 해안과 도서지역을 중심으로 순천지역에서 많이 불리는 노래로 여러 가지 타령들이 있다. 타령이란 노래나 소리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 판을 벌여 서로의 연애감정을 노래로 부를 때는 이를 사랑타령이라 하고, 힘든 삶을 노래로 위로할 때 이를 신세타령이라 한다. 이외에도 동물이름 등 무수히 많은 타령들이 있으나 대부분 특별한 장단에 얽매이지 않고 세마치나 자진모리 속도의 육자배기조 노래들이며, 선율의 독특한 특징이 나타나지 않는다.

사랑타령

에헤야 뒤야 에에헤 에야
에야라 뒤야라 사랑이로구나
높은봉 상상봉에 외로이선 나무
너도나 날같이 외로이 섰느냐
에헤야 뒤야 에에헤 에야
에야라 뒤야라 사랑이로구나
사내끼 백발은 세뭇음을 묶어도
사람의 백발은 쓸디가 없네
에헤야 뒤야 에에헤 에야
에야라 뒤야라 사랑이로구나
못먹을 나무는 열매도 많고
못살을 그 사랑은 정도나 많네

고사리타령

수양산 고사리 끈어다가 우리 아버님 반찬하자
끈자 끈자 고사리 끈자
삼각산 고사리 끈어다가 우리 어머님 반찬하자
끈자 끈자 고사리 끈자
백두산 고사리 끈어다가 우리 언니 반찬하자
끈자 끈자 고사리 끈자
태백산 고사리 끈어다가 우리 형님 반찬하자
끈자 끈자 고사리 끈자

방개타령

얼싸 오늘도 심심하니, 골짜 타령이나 하여보자
얼싸 지어라
방개 흥개로다
서상관이 사육(四六)하고, 서사 무사 오육(五六)하니
옥당 쌍소가 나다라 온다
아삼륙 작부자개 쌍변에 설흔이 나고
팔흑단에 열넷이 났다
물주가 어기어 팻장을 잡고 애기에 돌리고 팻장을 섞으니
일구 장자만 위태하다

골짜장난 칠장거리 등티를 보고 속장을 뽑는놈
내성을 갈고 발개 간다

장완(장원)타령

장완이야 장완이야
팔만도 장완이야
건네건지 제쳐놓고
한데 못본 내장완이야
손재세 손재세 저지 마다 손재우세
짜른 밤에 단잠자세

큰애기타령

오동나무 열매는 오조리 졸졸
새큰애기 젓봉은 몽실 몽실
옛보다 더 단 것은 진고개 사탕
초보다 더 신 것은 새큰애기 궁둥이
눈빠질몸 코빠질놈 다 일본 가고
보기 싫은 봉투만 날마다 온다
임보고 싶으면 사진을 보고
말하고 싶으면 전화로 하라
간장에 썩을 눈물 임의 화상을 그려 볼까매
손가락에 피를 내어 사사히 편지 할까
우리나 낭군은 쇠사슬 차고
행무소 마당에서 세월을 보낸다

죽순타령

병이났네 병이났네 우리엄마 병이났네
죽순나물 원하길래 왕대밭에 들어가서
왕당탕탕 꺾어다가 아랫물에 씻어갖고
우물가에 행귀갖고 바글바글 끓는물에
에양살짝 대쳐다가 은장두라 드는칼로 오송보송 찢어갖고
삼년뚝은 참기름에 육년뚝은 간장에다 오물쭈물 주물러서
새별같은 사기접시 오복소복 담아갖고
부모방에 들어가니 가고없네 가고없네 황천길에 가고없네
황천길이 길같으면 오고가고 내뭇할까
여막문이 문같으면 열고보고 내뭇할까

신세타령

엄매엄매 우리엄매 원한다고 원한것이
청포대포 재리밑에 공단색만 원했던가
원한금 자진고개 백발꽃이 되었구나

오빠오빠 우리오빠 피어나는 꽃꺾어라
 백발친구 주체든가 장개오네 장개오네 백발노인 장개오네
 꽃정크로 내가가리 열매보러 내가가재
 쉬용산아 쉬들마라 백용산아 배틀마라
 개닭잡아 공경하면 시간조차 내못사리
 산천초목 불미나리 물도 좋고 땅도 좋은
 큰방죽에 심어노면 대미나리 아니될까
 양반집에 들어서면 양반행세 내못할까

(4) 농 요

산업화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민족은 일을 하며 노래를 하고, 때로는 쟁과리·징·장구를 치기도 하였다. 일하면서 진행되는 음악에는 농민들이 농사를 지을 때 하는 것이 가장 많다. 농민들은 두레를 짜서 모찌기·모심기·김매기(논매기)와 같은 농사일을 하며 농요를 부르고, 두레패의 쇠꾼들은 두레풍장굿을 친다. 일하며 진행되는 음악은, 노래나 쇠를 침으로써 힘을 얻고 고단함을 잊기도 하고 행동을 통일시켜줌으로써 작업능률을 올린다. 이런 음악은 씩씩하며 매우 토속적이고 소박함과 전라도 특유의 향토적 음악성이 간직된 것이 많다.

다음은 낙안면 신기리의 상사소리와 산아지타령이다.

상사소리

여보소 농부들 내말듣소
 여보소 농부들 내말듣소
 점심때가 다되가니
 손세우소 손세우소
 우리농부들 손세우소
 어~ 허~ 허~여루 상~사~뒤~여~
 어털털털 상사뒤야
 여보시오 농부님네
 이내한말 들어보소
 아나농부들 말들어보소
 오늘 이배미꿍고
 장구배미가 마지막일세
 어~ 허~ 허~여루 상~사~뒤~여~

어~허~이어루 상사뒤~어~
 가노라간다 나돌아간다
 저님을 따라서 내돌아가네
 허~어~어루 상~사~뒤이~허~
 오르랑내리랑 잔기침소리
 자다가 들어도 우리님의 소리네

허~어~어루 상~사~뒤이~허

산아지타령

바람아 광풍아 불지를 말어라
우리네 낭군님 수중에 떴다
에야~ 아 뒤야~ 에헤헤이에야~
에~야 뒤허루 산아지로~ 고나
노다가세 노다가가세
저달이 떴다지도록 노다가세
에야~ 아 뒤야~ 에헤헤이에야~
에~야 뒤허루 산아지로~ 고나

(5) 상여소리(만가)

상여소리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민족의 사상이나 종교와 관련된 중요한 의식요(儀式謠)이다. 이는 단순한 노동요의 성격 외에도 인간의 죽음과 연관된 종교적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금까지 전승되고 있는 토속민요 중에서도 농요와 함께 상여소리는 각 지역 민속자료의 중요한 한 부분으로 인정받고 있다. 이러한 상여소리에는 그 음악의 사회적인 기능 때문에 경건성과 비애의 감정이 어떤 음악보다도 짙게 농축되어 있다. 전남에서는 '진도 상여소리'가 높은 음악성을 인정받아 지방 무형문화재 제19호로 지정되었으며, 전국에 그 소리가 알려져 있다. 순천의 '오장상여소리'는 내륙지역의 대표적인 상여소리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육자배기조의 슬프고 장엄한 소리로 꾸며졌다.

출상 전날 상여꾼과 마을사람들이 모여 밤을 썰 때는 시간에 맞춰 '경(更) 아뢰는 소리'를 한다. 경 아뢰는 소리는 대개 다음날 하게 될 상여소리를 한 대목씩 발췌하여 연습 삼아 부르기도 하며, 지역에 따라서는 독특한 '삼경소리'가 전해지기도 한다. 보통 초경부터 삼경 또는 오경까지 아뢰는데, 빈 상여를 메고 하기도 한다.

전남지역에서는 관을 방에서 상여 있는 곳까지 운반할 때 대개 '자진 관음보살'을 부른다. 관음보살은 와전되어 지역에 따라 관암보살, 가나암보살, 가난이범사, 가난범살 등으로 불리기도 한다. 상여가 집 안마당에 있거나 집 밖의 가까운 곳에 있으므로 노래할 시간이 짧아 긴 노래를 하는 경우는 많지 않으나, 마을에 따라서는 늦은 관음보살 같은 느린 노래를 몇 마디 부르기도 한다. 그런가 하면 노래를 하지 않는 곳도 있다.

본격적인 상여소리는 상여 메는 소리, 운상 소리, 언덕 올라가는 소리 등으로 나뉜다. 상여를 멜 때는 보통 늦은 관음보살이나 댛소리를 몇 번 부른다. 상여를 메고 마당을 한 바퀴 돌 때는 대개 늦은 관음보살을 부른다. 그런 다음 장지로 향해 나아갈 때는 어노소리, 어널소리, 어이가리넘차, 어허넘차 등의 노래를 부른다. 장지가 언덕에 있어서 상여가 언덕을 올라갈 때에는 자진 관음보살 등의 빠른 노래로 바꾸어 부른다. 순천지역에서는 달구질을 할 때 달구소리를 하는데 받는 소리는 오헤이 달구, 어럴럴 달구여, 에에 달구 등으로 부른다.

오장상여소리

오장소리

나무어~ 어허허~ 어허허~
어허허~ 어허허~ 어허 나무
에~ 에~ 허~ 에~ 에히 나무
나무어~ 어허허~ 어허허~
어허허~ 어허허~ 어허 나무
에~ 에~ 허~ 에~ 에히 나무

관음보살

관음보살을 많이많이허면은
세상세계가 밝어지네
관~음~보~살
초로인생은 풀끝에 이슬이라드니
과연 그말이 분명허네
관~음~보~살

어 넘자

언제가시면~은
어느때 어느 시절에 오실랴요
허~너 허~화넘~차
어이가리넘~차 너~화너~
가까오네 닥쳐온다
외나무다리가 닥쳐온다
허~너 허~화넘~차
어이가리넘~차 너~화너~
외나무다리가 닥쳐오니
상애를안으로 미어주소
허~너 허~화넘~차
어이가리넘~차 너~화너~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나무아미타불
대설이보살
나무아미타불
염불을 많이허면
나무아미타불
극락세계 간다드라
나무아미타불

